



생활 활력소 '라인댄스' 경연 광주서 열려

동신고서 전국축제...단체·개인 등 500여명 참여

‘제7회 광주전국라인댄스축제’가 최근 광주동신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전북, 전남지역 등 단체 전 11팀, 개인전 300명의 선수가 참여해 경연을 펼쳤다. 라인댄스는 여러 사람이 춤을 지어 주는 춤을 말한다. 특별한 파트너 없이 앞줄과 옆줄의 라인을 만들어 주는 선무(線舞)라고 할 수 있다.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남녀노소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매년 국가별 대회는 물론 세계대회도 열리고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이날 7~80대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 댄서까지 출전해 경쟁한 경연을 펼쳤고, 전주대학교 교양교육 수강생들로 이뤄진 댄스팀 ‘아노텐’은 15주라는 짧은 경력에도 대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기형 대한라인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라인댄스를 통해 춤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바꿔주고 싶다”며 “오는 11월 광주·전남지부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지역을 전세계에 알리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장환석 빛고을새마을금고 전무 행자부장관상

장환석 빛고을새마을금고 전무가 새마을금고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투명한 금고 운영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 전무는 1991년 8월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뒤 25년간 새마을금고 육성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경영개선뿐 아니라 광주시 북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급 봉투와 납부필증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해 주민들의 편의에 앞장섰으며, 매년 회원자녀와 지역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 하는 등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장환석 전무는 “개인의 영광보다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 돼 지역민과 가까이 다가간 결과”라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신뢰받은 지역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항쟁 실제적 진실 밝히려면 美 역할 연구 필요”

5·18관련 미국무성 등 해외문서 분석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지만, 국제적 역학관계로 따져 미국의 역할이 규명되지 않고서는 광주항쟁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최용주(60·박사)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광주항쟁과 미국과 역학관계를 연구 중점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5·18 재단의 제안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 국무성에 보낸 문서를 비롯한 각종 해외의 문서와 자료를 분석해 매달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그 첫 연구대상은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5·18기념재단에 기증한 89건의 문서로, 지난 1980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자료다. 그가 7일 언론에 공개한 연구결과는 80년 당시 카터 행정부의 역할이다. 골자는 인권을 내세웠던 카터 행정부가 대한민국 정치적 격변기에 ‘안정’을 택함으로써 신군부의 만행을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그동안 광주항쟁에서 미국의 역

리퍼트 대사 문서 89건 등 집중분석

연구 결과 조만간 단행본 간행

80년 전남대총학생회 간부로 활동

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해외 언론인의 증언과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폭로는 있었지만, ‘미국이 왜 그랬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이유로 미국 정부에서 기밀해제된 문서는 물론 광주항쟁과 관련된 해외 문서를 연구하게 됐다. 그는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리처드 홀브루크 전 동아시아 담당 국무차관 등의 인터뷰, 자서전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80년 당시 한국은 주권국가였지만 군사·외교, 경제 부문에서 사실상 미국에 종속돼 있었

습니다. 외생변수(外生變數)인 미국과의 관계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5월의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지 어렵습니다. 학살의 원인은 전두환 신군부이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 박사는 광주항쟁 관련 해외문건에 대한 연구를 거쳐 단행본을 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에 담긴 내용은 한·미 관계 변화와 5·18과 관련성,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가 5·18에 미친 영향 등이다. 최 박사는 광주항쟁 당시 박관현 열사가 이끌던 전남대총학생회에서 학술부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내란죄를 뒤집어 쓰고 각종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학을 전공한 그는 농협에서 퇴직한 뒤 다시 광주항쟁으로 돌아왔다.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자로서 부채지급’이 지리하고 있는 듯했다. 박관현 열사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그는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광주항쟁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김병기 국제이사 재직기념비 건립 준공식

광주 동구 용연부락에

지역 출신 최초 이사 선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총재 전광조)는 7일 광주시 동구 용연동 용연부락에서 김병기 국제이사 재직기념비 건립 준공식을 했다. 이번 기념비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최초로 지난 2013년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이사로 선출돼 국내·외에서 화합과 봉사에 기여한 김병기 이사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국제라이온스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후원자 100여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설치했다. 김 이사는 지난 1986년 8월 22일 355-B1 지구 광주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해 1995~1996 클럽 회장, 2001~2002 지구 사무총장·재무총장, 2006~2007 355 북항지구 제10대 의장을 지냈다. 2013 국제이사에 당선돼 2015년까지



활동했으며, 2014~2015 한국연합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길 공동추진위원장은 “지역 출신 최초로 국제이사로 선출돼 전 세계를 누비며 국제적 재난구호와 빈민구 지원,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기념비 건립을 통해 그의 공을 기리고 후배들에게 귀감을 줘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오카리나합주단

문예회관에서 창단연주회

광주오카리나합주단(단장 김미자·사진)이 오는 9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카리나 합주와 독주 등 단원들의 공연 외에도 독창과 클리너넷 앙상블, 탭댄스 등 축하공연이 준비돼 있다. 광주오카리나합주단은 지난 2015년 9월 17일 106명의 단원이 모여 창단했으며, 그동안 세계 아리랑축제 페레이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채기척이 지리하고 한미당 공연 등 20여 차례 국·내외 공연을 펼쳐왔다. 김미자 단장은 “그동안 지역 행사와 재능기부공연 등 시민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연주회에 참석해 우리의 공연을 보고 밝은 기운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장학재단, 호남권 대학담당자 간담회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광주현장지원센터에서 호남권 대학 장학담당자, 전남대·조선대 총학생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장학금·학자금 대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전남대 ‘영·호남 교류대학생 환영의 밤’



전남대는 최근 전남대 민주마루 리셉션홀에서 전남대·경북대·부산대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영·호남 교류대학생 환영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전남대 제공>

동신대 ‘캡스톤디자인 성과 발표회’



동신대는 최근 학교 중앙도서관 로비에서 건축공학·도시계획학·조경학과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 및 졸업작품전을 개최했다. <동신대 제공>

동강대 ‘친구와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강대는 최근 교내에서 간호학과 동아리를 중심으로 전체 교직원·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친구와 함께 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동강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충진회

▲전주에서 대중음악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월례 이화회(회장 이강렬) =13일(화) 오후 6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동문회

▲광주 북성중학교 총동창회(회장 윤복현) 한마음체육대회 및 무등산 자연보호 캠페인=24일(토) 오전 9시 무등산 중심사 문빈정사 앞 집결 후 산행, 오후 12시 30분 수자타에서 오찬행사, 문의 사무총장 오영남(21회) 010-9948-4867.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혹대처 및 단주법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양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병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

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퍼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소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전주에서 대중음악원 청년부 회원 =‘송조돈종’과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 종묘·사직대제, 조선왕조 500년 문화·역사를 함께할 전주이씨 또는 완산이씨, 문의 광주·전남청년이화회장 이철환

010-3601-1422. ▲농성문화의 집 수강생=성인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3~4시. 아동미술강좌 수요일 오후 4~5시. 천연화장품강좌 목요일 오전 11~12시. 오카리나 화요일 오전 11~12시 수강료 1개월 2만원 문의 062-362-2072. ▲실현차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산,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062-512-5788, 062-262-1542. ▲리본공예 수강생=취미반, 지도자반, 창업 자격증반 수시모집 010-9853-2121. ▲자원봉사 상설프로그램 회원=인권, 환경등 주제가 있는 자원봉사 학습및 활동. 초·중·고·대학생 등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확인서(3시간) 발급.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062-613-5587. ▲광주 장애인 문화협회원=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자 010-2727-1282.

부음

▲박숙희씨 별세 정인성(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채성(한국외대 강사)·희성(광주상일중 교감)·순성·윤성(사우디대 람교 재무담당)씨 모친상 나일주(서울대 교수)·권경안(조선일보 호남취재본부

장)·이기호(재미 목사)씨 빙모상 박희숙(강남대 교수)·최미순씨 시모상=발인 8일(목)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02-3410-3151. ▲박성춘씨 별세 정옥(해남제일주류 대표)·인옥(원주mbc 기자)·상옥(해남제일주류 근무)·용옥·광옥씨 부친상=발인 9일(금)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현대장례식장 제3추모관.

謹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故박동식 남(남/87세) 子/子婦: 박경환/양화재, 정민/박비숙, 경민/최연희 女/婿: 박경숙/최만석, 경숙/양행일, 현숙/김종석 * 발인: 6월 9일 * 장지: 나주 다시 선영 * 연락처: 227-4381	402호故김현철 남(남/53세) 子/子婦: 김민수/김경희, 민혁 女: 김민희 未亡人: 최연희 * 발인: 6월 9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3
101호故박숙영 남(남/69세) 子/子婦: 이성환/임경순, 주환/송미숙 夫孀: 이대영 * 발인: 6월 9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000	102호故윤영숙 남(남/78세) 子/子婦: 최연영/박영미, 김영/김효정, 동영/최정화 女/婿: 최연영/송경수 * 발인: 6월 9일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27-4385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 대표이사 구제길	